



조간 제 8144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음력 6월 28일)

통합의대 신청 20일까지... “목포대-순천대, 결단하라”

정부, 마감시한 ‘최후 통첩’...대학 통합 전제
지자체·두 대학 공동 추진계획서 제출 요구
동·서 지역 갈등 속 극적 합의 도출할 지 관전

국정과제로 ‘의과대학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의대 신설을 위한 최종 시한을 오는 20일로 못박으면서 담보상태에 놓인 양 대학의 통합과 의대 신설 합의 도출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추진 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을 목포대와 순천대에 발송했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2030학년도 지역 의과대학 신설 후보 지역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북도를 선정하고,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추진 계획서는 후보 지역의 지자체와 국립대학이 공동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역으로 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지역 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과대학 신설 후보 국립대학

1곳을 추천하도록 했다.

다만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양 대학 통합 방안을 합의 (의대/병원 위치 포함) 하고, 합의 내용에 따라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계획서에는 의대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지자체 지원 계획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의대 신설 원칙은 ‘시·도 내 국립대학에 설립’, ‘1대학·1병원’, ‘지리적 근접성 기준 적용’ 등을 담고 있고, 제출된 계획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공문에 명시해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목포와 순천에 각각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양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 제출을 요구해,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도 평행선을 걷고 있는 양 대학은 오는 20

일로 제시된 최후통첩 시한 내에 대학 통합과 의대·병원 주소에 대한 합의안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앞서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 2024년 11월 국립 의대 신설을 전제로 대학 통합에 합의했지만 통합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대학병원 소재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통합 절차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목포 의대·순천 대학병원’ 질추안을 제시했지만 순천대가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고, 이후 목포 의대 설치를 전제로 한 통합의료체계 구상에 동부권이 반발하면서 대학 간 이견은 동·서 지역 갈등으로 확대됐다.

공문이 발송된 지난 6일에도 양 대학은 비공개 협의에 나섰지만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지역사회에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국립의대 설립 목소리를 외면해 비난을 받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의대 설립 신청 시한이 담긴 정부의 공문이 양 대학에 전달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며 “양 대학은 대학 이기주의가 아닌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무더위 탈출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민형배 시장-김산 군수, ‘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공감대

3대 선결조건 큰틀서 이견 좁혀...“5자 협의체 적극 참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김산 무안군수가 무안에서 비공개로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민 시장과 김 군수는 지난 8일 무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군공항 이전과 무안군이 요구해온 3대 선결 조건,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문제 등을 놓고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이날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시기와 규모, 추진 속도 등 주요 현안에서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무안군이 제시한 3대 선결조건은 △광주 민간 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 △1조원 규모 재정 지원 △국가산단 조성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제시다.

이 가운데 국가산단 조성 문제는 최근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무안군이 요구한 100만평 규모 국가산단과 관련해 입주

기업 공동 유치 등을 통해 50만평 규모 산업단지의 분양을 보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지난 6일 산단 후보지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국토부도 관련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민간공항 이전 역시 재개항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희생자 유해 재수색과 시설 재정비 등이 진행되고 있다.

1조원 규모 지원 문제는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고 지원 확대 등이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통합에 따른 지원 재원 일부를 무안지역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측은 각 현안의 궁극적인 목표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에 있다는 데에



민형배 시장



김산 군수

도 뜻을 모았다.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보다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산 군수는 “우리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법 건설을 크게 환영한다”며 “향후 군공항 이전을 위한 5자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해 무안군의 요청과 국책사업의 상생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시장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 군공항 이전의 병행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 모두에게 좋은 해법을 찾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송용 기자 photo25@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하수 재이용수 공급 추진

김성환 기후부장관, 광주 하수처리장 찾아 방안 점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30만 규모의 하수 재이용수를 공급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광주 제1하수처리장을 찾아 반도체 산업단지 공급용수 공급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을 점검했다.

광주 제1하수처리장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예정지에서 약 3km 떨어져 있으며 하루 약 60만톤의 하수를 처리한다. 현재 영산강으로 방류되는 처리수의 수질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선 사업도 추진 중이다.

기후부는 이곳에 하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해 하루 30만 규모의 공급용수를 생산·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하수 재이용수를 철강과 전자, 중화학 산업 등의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만과 미국, 싱가포르 등이 하수 재이용수 공급이나 공정 내 물 재이용을 통해 산업용수를 확보하고 있다.

기후부는 앞으로 산업단지 등 대규모 물 수요처를 중심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 회원모집 안내

구분	분양금액	구좌	회원특전
VVIP (A형)	700	6좌	-정회원 1인 : 그린피먼제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정회원 동반3인그린피50% 할인, 연25회그린피먼제 (1일·1회 사용) -지정회원 1인 : 그린피먼제 위임시 동반3인 그린피 70%할인 (1일·1회 사용) 비회원에 그린피먼제 위임시 그린피 70%할인 (1일·1회1팀4인 기준) (단, 그린피먼제는 정회원, 지정회원, 비회원 중 1일·1회만 사용가능) -지정회원 2인 : 그린피먼제 (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일·1회 사용) -무기영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120회 사용/월 10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VVIP (B형)			-회원 없음 -무기영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70% 할인 (연 60회/월 5회 소멸성, 1일·1회1팀4인 기준)
VIP 정회원	500	9좌	-정회원 1인 : 그린피먼제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50% 할인, 연20회그린피먼제 (1일·1회 사용) -지정회원 2인 : 그린피먼제 (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일·1회 사용) -무기영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120회 사용/월 10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하트 정회원	320	5좌	-정회원 1인 : 그린피먼제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지정회원 1인 : 그린피먼제 (1일·1회 사용) -무기영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72회 사용/월 6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해피 정회원	180→160 (할인 20)	3좌	-정회원 1인 : 그린피먼제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무기영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36회 사용/월 3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회원권 문의 전화 ☎ 061)330-5004			

· 골프호텔 객실



- 2인실 -



- VIP 4인실 -



- 별채 -



- 별채 -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대표전화 061) 330-5000 | 예약전화 061) 330-5001~4